



正法頌

修禪의 正路는
 正法眼藏이요
 梵天王의 懇請으로
 佛法이 始現했네
 佛陀의 法旨는
 三處傳心인데
 靈山會上의
 拈花微笑요
 多子塔前의
 示分半坐요
 紗羅雙樹下에서
 나투신 擲示雙趺라네
 楞嚴에서 說하신
 雪山白牛는
 眞性의 出現消息이요
 眞性의 出入은
 頭頂의 泥丸宮이라네
 業識의 本郷은
 臍下의 命門이요
 脫業을 爲한 出發에는
 楞嚴神呪를 必誦해야하고
 性과 命의 同行雙修라야
 火宅을 可히 벗어날 수 있다네
 尋牛牧童 修禪學人아
 佛陀의 三處傳心하신!
 修行하는 正路에 들어와
 勇猛精進하여서
 彼岸으로 건너가는
 靈方을 찾아라!

任辰年 臘月八日
 智異山人 覺庵 性元 頌

佛陀釋迦世尊께서 傳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해동의 6祖 慧能大師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묻혀버린 正法이 1,300餘年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修行路 “禪林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說해져 있다.**

- 저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격 : 각권 15,000원
- 발행 : 동진기획